

“원폭”

Music by Saori Furuya

Words from

나카자와 케이지 [맨발의 겐],
(Keiji Nakazawa [Barefoot Gen])
Sankichi Touge [Genbaku-sishuu]
& Tamiki Hara [Genbaku-shoukei]

아 푸른 하늘이여
오늘도 더워 지겠구나.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 오세요.
빨리 다녀 오라고.
배를 띄워야겠군

아, 낙하산
도대체 뭘까?

(번뜩, 파앙)

물, 물, 물
물, 물 물을 주세요.

엄마, 뜨거워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아파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어디에 계세요?

아빠, 에이코, 신지!
아빠가 타요.
에이코가 타요.
신지가 타요.
아아아!

얼마 앞 있어서, 너마조각 같은 피부가
떨어져
양 손을 가슴에 대고
무너져 버린 너수를 밟고
타버린 옷을 허리에 걸치고
울면서 함께 걸었던
벌거벗은 사람들의 행렬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몸이 무섭게 부풀어져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의 물체가
되어서

아아, 그 새까맣게 엉망진창으로 탄
얼굴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살려 주세요
라는 가냘프고 조용한 말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빠를 돌려줘, 엄마를 돌려줘.
노인을 돌려줘,
아이를 돌려줘,
나를 돌려줘, 나와 관련된
사람을 돌려줘!

인간의 세상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평화를 돌려줘.

(translator: Chie Hosokawa & Yongsung Lee)